

한·중 여대생의 결혼관과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반가¹, 박혜령², 김은하³, 이창식^{4*}

¹한서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박사후 연구원, ²한서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³한서대학교 ⁴의상디자인학과 박사후 연구원, ⁴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Wedding Perspective and Preference for Wedding Dress Design of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 Pan¹, Hey-Ryung Park², Eun-Ha Kim³, Chang-Seek Lee^{4*}

¹Researcher, Dept. of Convergence Design, Hanseo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Textile Design, Hanseo University

³Researcher, Dept. of Textile Design, Hanseo University

^{4*}Professor, Health, Counseling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중 여대생의 결혼관과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를 비교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여대생 191명과 중국 여대생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PC+ 2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신뢰도 분석, 교차분석, 평균비교분석이었고, 검증은 카이 스퀘어 및 t검증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대생은 결혼하겠다라는 응답이 중국 여대생보다 높았다. 중국 여대생은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로 경제, 생활, 부모 관련 문항에서 한국 여대생보다 높았다. 또한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배우자에 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경력에 관한 걱정 등에서 중국 여대생이 높았다. 둘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네크라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미래 웨딩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키워드 : 결혼관,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한·중 비교, 여대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spective of marriage and preferences of wedding dress design for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China. To this end,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for 191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and 199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C + 25.0, and the applied statistical techniques were reliability analysis, cross-tab analysis, and mean comparison analysis.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chi-square and t-test were us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marry than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For the reason of wishing to marry,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higher than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in economic, life, and parent-related items. The reason for not wanting to get married is that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high in worrying about their spouse, work, and their career. Second, the wedding dress design preferred by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was different in the neckline. Finally, the policy measures for consumer preference and satisfaction in the future wedding industr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spective of Marriage, Wedding Dress, Design Preference, Korea-China Comparison, Female University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Chang Seek Lee(lee1246@hanmail.net)

Received April 06, 2020

Revised April 12, 2020

Accepted April 20, 2020

Published April 30, 2020

1. 서론

경제, 문화 및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웨딩 시장도 동·서 문화의 끊임없는 융합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웨딩 소비 및 발전 회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결혼을 하고, 30% 이상의 예금을 웨딩 예식을 위한 소비에 사용한다. 또한 전체 인구의 웨딩드레스 소비는 연간 60억 위안에 달한다[1]. 이처럼 높은 웨딩 소비는 중국 웨딩 시장에 활기를 부여한 동시에 웨딩드레스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했으며, 따라서 중국 웨딩 시장의 발전 전망은 주변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웨딩 산업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의 웨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취향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웨딩드레스는 웨딩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비 품목인데 웨딩드레스의 스타일 및 디자인 양식 선택 및 구매 후의 평가와 같은 소비자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미래 웨딩드레스의 국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한편 최근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한국 웨딩 산업도 변화되고 있다. 한국은 독신이 점점 늘어나고, 결혼을 포기한 청년층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한국의 결혼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다[2]. 이와 같은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현대 여성의 독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은 원인도 있다.

중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부분 한 가정에 아이가 1명뿐이었고, 이 시대에 출생한 아이들이 현재 결혼 연령이 되었다. 중국민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사회서비스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각급 민정기관과 혼인신고기관에서는 1,063.1만 쌍 부부의 혼인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0% 감소하였다. 즉, 결혼한 사람이 감소하였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결혼할 사람이 증가하고, 심지어 결혼의 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경우 웨딩 산업은 새로운 성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웨딩 시장의 소비자 취향을 조사하고, 목표 소비자를 파악한 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 웨딩드레스 브랜드를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대생들은 미래 결혼 시장의 예비 소비자로서 그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웨딩 산업의 관점에서 여대생의 결혼관과 웨딩드레스 선호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중국 웨딩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한·중 여대생 간 결혼관은 차이가 없는가?, 둘째, 한·중 여대생 간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에 차이가 없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결혼관

2.1.1 한국인의 결혼관

1960년부터 서양 문화가 전입됨에 따라 기독교 사상이 한국에서 전파되면서 서양식 결혼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3]. 과거의 결혼 문화는 보통 부모의 의지에 따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혼 관념이 바뀌면서 자기주도로 혼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4].

최근에 들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한국의 결혼관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결혼을 포기한 청년층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까지 한국의 결혼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1% 줄었다[2]. 이 같은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현대 여성의 독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원인도 있다.

2018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남녀 대다수가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도 안 해도 된다는 결혼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 또 실제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여성 36%, 남성 43%로 조사됐다[2].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업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애나 이성친구와 교제하는 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소비의 다양성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 조건도 더 엄격해졌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와 정보화시대는 현대인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 대학생들은 학부 단계의 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간 후, 바쁜 업무로 인해

결혼의 선택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그들의 결혼 연령을 연기시킨다. 또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연애를 하면서 연애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대 젊은이의 결혼관은 개성화 및 다양화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2.1.1 중국인의 결혼관

중국은 1980년대에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할 것을 권장하였다. 대부분 1990년대 출생한 아이는 가정의 유일한 자녀가 되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주력군 역시 그때 출생한 젊은이들이며, 이러한 정책은 이들의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의 결혼관을 살펴보면 결혼과 가정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 결혼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체험과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강렬한 개인주의 색채를 띄고 있다[5].

한편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은 어느 정도로 중국 여성의 지위 상승을 촉진시켰다.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한 가정이 한 아이만 양육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아이는 남녀를 막론하고 가정의 중심이 되어 가정 발전의 희망이 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로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 받는 정책의 시행을 촉진했다[3]. 그러므로 더 많은 여성이 직장에 나가게 되고, 독립의식이 점차 강해졌다. 이러한 남성에 의지하지 않는 생활 방식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권리의 의식도 전체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중국 여성의 인생 의지와 독립의식이 점차 강해졌고, 자주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삶의 가치를 선택하고, 혼인관계를 조절하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결국 경제 발전의 속도와 사회관계의 진보 여부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천에 영향을 미쳤다[6].

중국 민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사회서비스발전통계공보(Social Service Development Statistics Communique)에 따르면, 2017년 각급 민정기관과 혼인신고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1,063.1만 쌍 부부의 혼인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0% 줄어든 수치로, 결혼한 사람이 감소되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결혼할 사람이 증가되고, 심지어 결혼의 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럴 경우 웨딩 산업은 새로운 성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웨딩 시장의 소비자 취향을 파악하여 목표 소비자를 확정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 웨딩드레스 브랜드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웨딩드레스(Wedding Dress)란 서양 문화권 웨딩의식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웨딩가운(Wedding Gown), 브라이덜 웨어(Bridal Wear), 불어로는 로브 드 마리에(Robe de mariée) 라고도 칭한다[7]. 웨딩드레스는 대체로 화이트 계열의 드레스와 베일(Veil)이 기본 구성요소이며, 트레인(Train), 화관 등 기타 장식구 등도 포함되는데 각각의 요소들은 결혼의 신성함과 엄숙함을 상징해 주는 역할을 한다[8]. 웨딩드레스는 상징성이 있어 결혼이라는 특수한 의식을 표현할 수 있다[9].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웨딩드레스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10].

의복 선호도는 자아 이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 이는 의복 평가의 표현으로 개인이 속하고 있는 단체,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문화 등을 나타내며, 심리적으로는 개인의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성격 등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의복 선호도는 자아 이미지를 나타내며 개인의 의복을 선택,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12].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는 롱 드레스 스타일로 레이스(lace), 새틴(satin), 시폰(chifon), 실크(silk) 등 소재를 많이 사용해 제작한다.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이 갖는 특별함, 숭고함, 신성함, 경건함 등의 의미와 함께 신부의 아름다움, 순결함 등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웨딩드레스는 일생에 한번 착용하는 의상이기 때문에 기능성이나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보다는 감성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심미적 디자인이 강조되어야 한다[13]. 따라서 시장조사를 통해 미래의 웨딩드레스 시장소비자들의 요구와 취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 선정된 한국 여대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의 여대생이며,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는 2019년 3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서울의 S, Y, K 3개 대학에 다니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여대생은 3개 대학 중 1개 학과를 임의 선정 후 학과의 조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응답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국인 여대생은 연구자가 3개 대학의 어학연수원과 외국인학생회를 방문하여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중국어 설문지를 배포,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한 한국 여대생 191부, 중국 여대생 199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결혼관 및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선호도를 사용하였다. 결혼관은 Davis[14]의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결혼여부(“귀하는 장차 결혼을 희망하십니까?”),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 9문항(“생활이 편리하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 그리고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0문항(“결혼에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 “독신은 자유롭다” 등)이다.

디자인 선호도는 Kim과 Kim[15], Shin과 Gwon[16]의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네크라인, 허리선, 스커트 그리고 베일의 디자인 선호도(“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유형은?”)로 구성하고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이중 번역하였는데 먼저 한국어로 번역한 후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연구자가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한국과 중국 설문지는 일치할 때까지 수정을 반복하여 작성하였다.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적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문항분석, 평균비교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한·중 여대생의 결혼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결혼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교차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결혼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21.740$, $p<.001$). 즉, 한국 여대생은 결혼하겠다는 응답자가 71.2%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보다 많았으나 중국 여대생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52.0%로 중간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Korean-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marriage perspective
(): %

	No	Yes	Total	χ^2
Korea	55 (28.8)	136 (71.2)	191 (100.0)	21.740 ***
China	103 (52.0)	95 (48.0)	198(100.0)	
Total	158 (40.6)	231 (59.4)	389(100.0)	

*** $p<.001$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와 희망하지 않은 이유를 비교하기 위하여 문항별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먼저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간 결혼 희망 문항 중 “경제적인 여유”, “생활의 편리”,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부모를 안심시키고 기대에 보답” 문항은 차이가 있었다. 즉, 중국 여대생이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로 경제, 생활, 부모 관련 문항에서 한국 여대생보다 높았다. 반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살고 싶다”, “정신적인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자녀와 더불어 자신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다”, “가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싶다” 등과 같이 사랑이나 가정 관련 문항에서는 한·중 여대생 간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한·중 여대생 간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 “독신은 자유롭다”라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한·중 여대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내 경력에 단절될 수 있다”라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당한 배우자에 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경력에 관한 걱정 등이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able 2. T-test analysis of the reasons for marriage hope between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Item	Country	N	M	SD	t-value
Can afford economics	Korea	191	2.8377	0.90603	-2.888**
	China	199	3.1106	0.95761	
Life is very convenient	Korea	191	2.7853	0.93527	-4.137***
	China	199	3.1709	0.90507	
Can be independent from parents	Korea	191	3.1832	1.10641	-2.086*
	China	199	3.4121	1.05938	
I want to live with someone I love	Korea	191	4.2932	0.79333	-1.912
	China	199	4.4372	0.69255	
Can get a place of mental comfort	Korea	191	3.7277	0.93989	-1.147
	China	199	3.8342	0.89196	
Can reassure your parents and want to repay their expectations	Korea	190	3.1632	1.17276	-1.972*
	China	199	3.3819	1.01248	
Can have your own family with your children	Korea	191	3.4293	1.20262	0.509
	China	199	3.3719	1.0212	
I wa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home	Korea	191	3.3455	1.15893	-1.180
	China	199	3.4673	1.00889	
Married because others do	Korea	191	1.8953	0.96765	-1.713
	China	199	2.0704	1.04692	

*p<.05, **p<.01, ***p<.001

Table 3. T-test analysis on why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do not want to get married

Item	Country	N	M	SD	t-value
Can't find the right person for marriage	Korea	187	3.3102	1.21817	-6.345***
	China	199	4.0151	0.95599	
Self-economy is independent, so there is no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marriage	Korea	188	3.1968	1.05900	-3.342**
	China	199	3.5377	0.94673	
When choosing a spouse, the standards are high, so I don't want to date	Korea	188	2.8351	1.07447	-10.296***
	China	199	3.8543	0.86682	
Singles are free	Korea	188	3.5532	1.14338	-1.842
	China	199	3.7538	0.99731	
I'm afraid I can't handle my relationship with my parents-in-law	Korea	188	2.9734	1.06692	-4.578***
	China	199	3.4322	0.90127	
I'm afraid my spouse has no family responsibilities	Korea	188	3.1223	1.08511	-7.527***
	China	199	3.8442	0.78551	
It takes a lot of time to care for my home and I get stressful	Korea	188	3.484	1.12091	-3.089**
	China	199	3.799	0.87606	
I can't get married because I'm busy	Korea	188	3.0585	1.07563	-2.277**
	China	199	3.2814	0.84160	
Divorce rate rises and fear of marriage	Korea	188	2.7394	1.11439	-3.958***
	China	199	3.1709	1.03033	
Marriage can break my career.	한국	188	3.4468	1.15270	3.058**
	중국	199	3.1206	0.94041	

p<.01, *p<.001

4.2 한·중 간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4.2.1 네크라인 디자인 선호도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간 웨딩드레스 네크라인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은 네크라인 디자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18.261, p<.05$). 즉, 중국 여대생은 오픈숄더 네크라인 (22.6%)을 더 선호하고, 한국 여대생은 하이 네크라인 (8.9%)을 더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여대생 간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 “독신은 자유롭다”라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한·중 여대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내 경력에 단절될 수 있다”라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당한 배우자에 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경력에 관한 걱정 등이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able 4. Cross-tab analysis on preferences for neckline design between Korea and China

(): %

Country	 Open shoulder	 Sweet heart	 Halter	 V line	 Square	 Bared top	 High	 One shoulder	 Round	Total	χ^2
Korea	33 (17.40)	58 (30.50)	11 (5.80)	26 (13.70)	17 (8.90)	13 (6.80)	17 (8.90)	4 (2.10)	11 (5.80)	190 (100.0)	18.261 *
China	45 (22.60)	61 (30.70)	5 (2.50)	28 (14.10)	12 (6.00)	13 (6.50)	6 (3.00)	17 (8.50)	12 (6.00)	199 (100.0)	
Total	78 (20.10)	119 (30.60)	16 (4.10)	54 (13.90)	29 (7.50)	26 (6.70)	23 (5.90)	21 (5.40)	23 (5.90)	389 (100.0)	

*p<.05

Table 5. Cross-tab analysis on preferences for waistline design between Korea and China

(): %





Country	 High	 Natural	 Low	 No-cut	Total	χ^2
Korea	122 (64.60)	51 (27.00)	12 (6.30)	4 (2.10)	189 (100.00)	7.073
China	152 (76.40)	38 (19.10)	6 (3.00)	3 (1.50)	199 (100.00)	
Total	274 (70.60)	89 (22.90)	18 (4.60)	7 (1.80)	388 (100.00)	

4.2.3 웨딩드레스 스커트 길이 디자인 선호도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간 웨딩드레스 스커트 길이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간 스커트 길이 디자인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6. Cross-tab analysis on preferences for skirt length design between Korea and China

() : %

Country	 Mini	 Midi	 Long	 Maxi	Total	χ^2
Korea	1 (0.50)	7 (3.70)	117 (61.30)	66 (34.60)	191 (100.00)	2.987
China	4 (2.00)	8 (4.00)	109 (54.80)	78 (39.20)	199 (100.00)	
Total	5 (1.30)	15 (3.80)	226 (57.90)	144 (36.90)	390 (100.00)	

4.2.4 웨딩드레스 베일 디자인 선호도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간 웨딩드레스 베일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한국과 중

국 여대생 간 베일 디자인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7. Cross-tab analysis on preferences for bail design between Korea and China

() : %

Country	 Short	 Middle length	 Long	 Super length	Total	χ^2
Korea	22 (11.50)	55 (28.80)	77 (40.30)	37 (19.40)	191 (100.00)	6.351
China	17 (8.50)	52 (26.10)	70 (35.20)	60 (30.20)	199 (100.00)	
Total	39 (10.00)	107 (27.40)	147 (37.70)	97 (24.90)	390 (100.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중 여대생의 결혼관과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를 비교, 분석하여 웨딩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논의,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대생은 결혼하겠다(70.2%)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중국 여대생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다소 높았다(52.0%). 결혼이 취업, 경제여건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보다 이러한 한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국 여대생이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로 경제, 생활, 부모 관련 문항에서 한국 여대생보다 높았다. 반면 사랑이나 가정 관련 문항에서는 한·중 여대생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여대생들이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가 한국 여대생보다 경제, 생활수준 및 부모와의 관계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비부부만의 사랑 및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한·중 여대생의 공통적인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였다.

또한 중국 여대생이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적당한 배우자에 관한 문항, 일에 대한 문항, 경력에 관한 문항 등에서 한국 여대생 보다 높았다. 즉, 중국 여대생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직장 및 경력에 관한 문제를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인식하는 정도가 한국 여대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결혼이 전제되어야 웨딩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중국 여대생들의 결혼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한국 웨딩 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중 간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웨딩드레스의 네크라인, 허리선, 스커트 길이, 베일 디자인에서 한·중 여대생 간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네크라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중국 여대생은 오픈숄더 네크라인을 더 선호하고, 한국 여대생은 하이 네크라인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는 한·중 여대생 간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웨딩 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되고, 나

아가서 차이점은 보완하고 유사점은 계속 발전시켜 웨딩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여대생과 결혼관 및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들 이외의 직장인 등 다양한 집단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후속연구에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과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 간 관계성 파악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국 웨딩 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 즉, 구매 관련 변인, 광고, 가격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 [1] Z. Y. Qiu. (2014). Investigation and Marketing of Urban Marriage Clothing in Northern Suzhou City. Tianjin: *Tianjin Textile Science & Technology*, 47-49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Number of Korean marriages and divorces between 2012 and 2017 of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3] S. Y. Kim. (2010). *The research of the Korean with Japanese on consumer satisfaction and loyalty in the wedding industr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4] D. W. Lee. (1988). *A Study on the quality of marital life among urban Korean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5] Y. Lv. (2017). *Study on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50 and 20 years of marriage in sociology*. Master's thesis, Northea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6] Q. Cao. (2013). *On Change of Family Value in China's Marriage in Social transition* LanZhou: Northwest Normal University of China

[7] S. M. Nam. (1996). *Etiquetteology: theory and practice*, PY Mate, Seoul.

[8] Y. S. Kim.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dding Dress Design in Wedding Cultures of Value Consumption*.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9] S. H. Park. (2011). *A Study of the Influence of On-Line Word-of-Mouth on the Customer Purchase Intention*.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10] M. J. Jeon. (2014). *Study on the design change of domestic wedding dress in 1990'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11] M. R. Delong, & B. C. Minshall. (1988). *Categorization of Self-Feeling, In the Self in Social Interaction*, C. Gordon and K. J. Gergen, eds, New York. John Wiley&Sons, Inc.

[12] I. J. Dolish. (1969). Congruence Relationships Between Self Image and Product Brand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 80-84

[13] E. J. Lee. (2005). *A Study on the analysis for wedding dress design and sensibility image and preference*.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14] K. Davis (1950). Statistical perspective on marriage and divor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72(1), 9-21.

[15] M. S. Kim. & G. H. Kim. (2010). Korea and Japanese single man and woman's wedding and the preference degree comparison research on the wedding industr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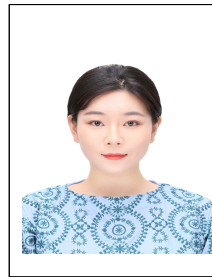
117-136.

[16] E. J. Shin & H. S. Gwon. (2002). Correlationship with Wedding Dress Image Preference and Self Imag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52(5), 31-45.

[17] Y. J. Cho. (2006). *Research on female college students' views on marriage and childbirth*.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반 가(Pan, Ge)

[정회원]



- 2016년 2월 : 한서대학교(디자인 학석사)
- 2020년 2월 : 한서대학교 (디자인 학 박사)
- 관심분야 : 복식디자인, 패션마케팅
- E-Mail: 479406657@qq.com

박혜령(Park, Hea Ryu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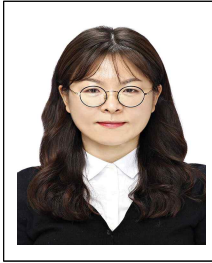


- 1986년 2월: 건국대학교(의상학 석사)
- 1996년 2월: 동국대학교(가정학 박사)
- 2009년 1월 ~ 현재 : 한국의상 디자인학회 이사
- 1993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복식디자인, 패션마케팅
- E-Mail : hrpark@hanseo.ac.kr

김은하(Kim, Eun Ha)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가정학 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이학 박사)
- 2000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강사
- 2018년 12월 ~ 현재 : 링크(LINKU) 디자인 팀장

- 관심분야 : 복식미학, 복식디자인
- E-Mail: drkim0414@hanmail.net

이창식(Lee, Chang Seek)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평생교육, 연구방법
- E-Mail : lee1246@hanmail.net